

# 15개 건설업체 수주실적 '0'

지난해 도내 건설업체 중 단 한 건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곳이 15개 업체로 영세 건설사의 공사수주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.

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건설단체에 소속된 건설업체 400여 개 업체 중 공사실적이 아예 없는 업체는 전체의 3% 수준인 15개 업체로 집계됐다.

도내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600여 개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적이 '0'인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또 공사실적이 10억원 미만인 업체도 150개에 달해 일부 대형 및 중견건설사를 제외하고는 3분의 1 이상이 실적 부

상위 10개 업체 실적 37.6% 차지  
도내 건설사 3곳 중 1곳 경영난

진에 따른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지역 건설시장의 양극화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.

2014년 전체 기성실적 2조3,788억원 중 상위 10개 업체의 실적 총액은 7,764억5,800만원으로 전체의 32.6%를 차지했다. 지난해에는 1조466억3,200만원으로 전년보다 상위 10개 업체의 실적 총액이 2,701억7,400만원이 늘어난데

다 전체 기성실적(2조7,813억2,600만원)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.6%로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.

건설업계에서는 중소건설사들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

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“외지에서 들어온 페이퍼컴퍼니 등 자격미달 업체를 빨리 퇴출시키고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공사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”며 “현재로선 공사계약 및 기성실적의 상당 부분이 상위 10개 업체에만 몰려 있어 동반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”이라고 말했다. 하위윤기자